

계획된 행위이론을 이용한 대학생의 SNS 온라인 추모의도 연구: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재신*, 최승훈**

< 국문요약 >

21세기에 들어서서 온라인 추모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가 사회에 참여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SN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이용하여 온라인 추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개인의 정치성향이 계획된 행위이론 변인들의 역할을 조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정치성향은 태도 및 주관적 규범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온라인 추모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정치성향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온라인 추모, 디지털 추모, 합리적 행위 모형, 정치 성향, 조절 변인, 지각된 행위통제

* 이재신(Lee, Jae-Shin, 주저자. E-mail: tjslee@cau.ac.kr)

학위취득대학: Cornell University 현직: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 최승훈(Choi, Seung Hoon, E-mail: babo_csh@naver.com)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석사

† 이 논문은 2015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이며 공동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에 사용된 자료를 재분석하여 새로이 구성하였음.

논문접수일 : 2017년 1월 2일, 논문수정일 : 2017년 2월 3일, 게재확정일 : 2017년 2월 9일

계획된 행위이론을 이용한 대학생의 SNS 온라인 추모의도 연구 21

Research on the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SNS Online Mourning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Focusing on the Moderating Role of Political Propensity

Lee, Jae-Shin, Choi, Seung Hoon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online mourning has spread worldwide and is viewed as a new way for the younger generations to participate in society. In this research, we examine preceding variables of intention to mourn online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doing so, we also examine the moderating role of individuals' political propensity. Results from a survey administered to college SNS users show that political propensity interacted with attitude and subjective norms in influencing intention. Results also show that the way political propensity interacts with attitude is opposite from the way it interfaces with subjective norms.

[Keywords] *online digital mourn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political propensity, moderator,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 서론

지난 2016년 11월 29일 브라질 프로축구 팀 사페코엔시 선수 등 81명을 태운 비행기가 추락해 대부분의 승객이 사망하자 전 세계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특히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용자들은 프로필에 추모의 상징인 근조 리본을 게시하거나 이들에 대한 삽화, 게시글, 댓글, 동영상 등을 남김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애도했다. 이처럼 SNS를 통해 개인 혹은 다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을 온라인/디지털추모(online/digital mourning)라고 한다(Giaxoglou 2015).

국내의 경우 지난 2014년에 세월호가 침몰했을 당시 많은 네티즌들이 온라인 추모에 참여했다. 이후 국내에서 온라인 추모가 확대되어 가면서 그 대상은 국외의 테러 희생자나 유명 연예인 등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온라인 추모가 주로 SNS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SNS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게시글이나 댓글, 동영상의 형태로 온라인에서 망자에 대한 애도가 진행되었다(이완수·유재웅 2013).

세월호 사고의 온라인 추모 현상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윤홍석 등(2014)은 SNS 사용자들의 온라인 추모가 망자에 대한 감정 표현의 역할에 더해 사회 참여적 성격도 띠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월호 사고를 잊지 않고 향후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도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집합행동에 대한 기존연구들에서는 온라인 사회참여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비관습적 사회참여의 한 방식으로 취급해왔다(Ester and Vinken, 2003).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인터넷을 활발히 사용하는 젊은 세대는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에 참여한

다. 온라인 사회참여의 특징은 개인의 특성과 함께 사회 연결망으로부터 전해지는 사회적 영향 등이 상호작용하여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김경미 2005).

온라인 추모 특히 SNS를 통한 추모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현상이기에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온라인 추모글에 대한 내용분석(이완수·유재웅 2013), 참여자 인터뷰(윤홍석 외, 2014), 사례연구(Lyndsay 2013) 등 소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아직까지 온라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온라인 추모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젊은 세대가 사회에 참여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추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계층인 대학생 SN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온라인 추모를 개인의 이성적 판단에 의한 계획된 행위로 상정하고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이용하여 온라인 추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개인의 정치성향이 계획된 행위이론 변인들의 역할을 조절(moderation)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II. 이론적 고찰

1. 계획된 행위이론

과거부터 사회심리학에서 활발하게 탐구되어온 분야의 하나는 개인의 신념과 태도가 행동의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 중 태도와 행동의 관계는 많은 연구자들이 핵심적으로 탐구해온 분야에 해당한다. 피시바인과 아젠은 기존의 기대-가치 이론(expectancy-value theory)과 다속성 태도 모형(multi attribute attitude model) 등의 태도-행동 관련 모형들을 발전시켜 합리적 행위모형(theory of reasoned action)을 제시했다(Fishbein and Ajzen 1975).

합리적 행위모형의 핵심은 행동의 선행단계에 행동의도가 있으며 이는 행동 수행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때 태도는 해당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의미하며 주관적 규범은 행동 수행과 관련한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반응에 부응하려는 정도를 의미한다. 태도는 개인이 해당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것이며 이는 개인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주관적 규범은 일종의 사회적 영향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행동이 반드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며 주변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합리적 행위 이론은 개인의 행동이 개인의 의지와 주변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 자신과 주변의 판단이 긍정적일지라도 해당 행동을 수행할 기회, 능력, 혹은 자원이 부족한 경우 이를 실제로 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아젠(Ajzen 1991)의 계획된 행위 이론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를 행위의도의 선행변인으로 포함하여 합리적 행위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이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개인이 해당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쉽거나 어려운가에 대한 스스로의 지각에 해당한다. 이는 반두라(Bandura 1977)의 사회인지이론

(social cognitive theory)의 핵심 개념인 자아 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효능감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해당한다면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동을 스스로 관할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개인이 특정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통제 신념(control belief)에 의해 결정된다. 계획된 행위이론은 이렇게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행위의도에 영향을 주며 이는 다시 행위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계획된 행위이론은 그동안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사회인지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아왔으며 이에 따라 심리, 사회, 의학,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체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또한 음주, 흡연, 건강 행동, 쇼핑, 소비행동, 영화 감상 등 다양한 행동에 적용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이론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왔다(Rivis Sheeran and Armitage, 2009).

2. 온라인 추모의도의 선행요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추모의도의 영향요인을 계획된 행위이론을 이용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온라인 추모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가 온라인 추모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했다.

먼저, 태도는 기존 연구에서 행위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되어왔으며 많은 연구들을 통해 그 역할이 입증되어 왔다. 지난 2011년까지 출간된 국내논문 188편을 메타 분석한 손영근과 이병관(2012)에 의하면 태도는 행동의도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행동의도 변량의 20.7%를 설명해주었다.²⁾

해외논문들에 대한 메타분석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태도와 행위의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행위의도 변량의 24%를 설명해주었다(Armitage and Conner 2001).

주관적 규범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이 행동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주변의 사회적 영향 혹은 기대에 부응하려는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준거 집단의 신념에 대한 개인의 순응 동기가 높을수록 주관적 규범의 영향은 커지게 된다(Fishbein and Ajzen 1975). 개인의 순응 동기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중 특히 개인의 문화적 성향(cultural proclivity)과의 관련성이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가령 서구문화권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 비해 동양문화권의 집단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집단에 대한 순응 동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2002). 실제로 관련 논문들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개인주의 문화권의 경우($r=.340$) 보다 집단주의 문화권인 국내의 경우($r=.393$)에 주관적 규범과 행위의도의 상관관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손영곤·이병관 2012).

이제까지 계획된 행위이론이 다양한 행동에 대해 적용되어 왔지만 주로 개인적인 행동(예: 흡연, 구매, 음주 등)에 대한 것이었다(Rivis et al. 2009). 온라인 추모는 공개적으로 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사회참여 행동이자 집합적 행동에 해당한다(윤홍석 외 2014). 특히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추모는 온라인 사회 연결망 내의 타인들에 의해 관찰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SNS 온라인 추모 행위는 많은 경우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노란 리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진다. 개인의 프로필은 타

인에게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즐겨 활용되곤 한다(Siibak 2010). 온라인 추모의 이러한 공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에 온라인 추모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행위의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합리적 행위이론과 계획된 행위이론을 구별해주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위의도 변량의 18.5%를 설명해주는데 이는 주관적 규범의 설명력(11.6%)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Armitage and Conner 2001). 특정 행동이 개인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경우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위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가령 식사를 하거나 일용품을 구매하는 등의 간단한 행동에서 지각된 행위통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금연, 은행으로부터 대출 등 자신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지 않은 행동들의 경우 지각된 행위통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Ajzen 1991).

온라인 추모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SNS 프로필에 추모 사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지만 게시물, 댓글, 삽화, 동영상 올리는 방법도 이용된다(이완수·유재웅 2013). 따라서 온라인 추모행위를 전적으로 개인의 통제 하에 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개인이 온라인 추모를 하고자 해도 이와 관련된 지식, 기술, 시간, 기회 등의 능력이나 자원이 부족한 경우 사람들은 추모행위에 장애를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추모의 경우에도 지각된 행

2) 메타분석에서는 많은 연구들에서 측정된 다양한 효과 값들을 하나의 표준적인 값으로 변환하여 그 크기를 비교하곤 한다. 이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값이 상관관계(r)이다.

위통제가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위이론이 예측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가설들을 제시했다.

가설1: 온라인 추모에 대한 태도는 추모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2: 온라인 추모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추모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3: 온라인 추모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추모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제까지 계획된 행위이론에 근거하여 온라인 추모의도의 선행요인을 살펴보았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특정 행동의 경우 계획된 행위이론의 변인들이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외부 요인들에 의해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Blanchard et al. 2003). 즉 상황에 따라 이들 변인의 관계를 조절(moderation)하는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계획된 행위이론의 조절 변인에 대한 탐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인종(ethnicity)의 조절적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제까지의 결과에 의하면 인종에 따른 문화적 성향(예: 개인주의, 집단주의)이 주관적 규범 같은 변인의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lanchard et al. 2003, 2007).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계획된 행위이론 변인들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종이나 문화적 성향 등은 개인의 자아성향이나 신념, 그리고 가치관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Kim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계획된 행위이론 변인들의

관계를 조절하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치성향(political propensity)'을 온라인 추모에 대한 계획된 행위이론의 조절 변인으로 상정했다. 정치성향은 사회와 정치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인에 해당한다(Jost, 2006). 국내의 경우 온라인 추모의 기원은 촛불집회 같은 정치적 사안이나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로부터 시작되었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완수·유재웅 2913). 이는 적어도 국내의 경우 온라인 추모가 단순히 망자에 대한 애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태도와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추모를 일종의 온라인을 통한 사회·정치적 참여행위의 하나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는 온라인 추모행위가 개인의 정치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을 나타내는 정치성향에 따라 각 변인들이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어 있다.

3. 정치성향

정치성향은 사회정의나 사회질서를 이룩하는 방법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 정의될 수 있다(Jost 2006). 정치성향은 정치적 과정, 정파, 정치인, 정치적 사건 등을 향한 의식과도 관련되며 흔히 개인이 지니고 있는 보수 혹은 진보의 성향을 의미한다(황유선 2013). 이때 진보와 보수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나 '불평등에 대한 수용'의 정도로 구분되기도 한다.

정치성향은 개인 삶의 목표, 가치, 동기 등에도 영향을 주어 단순히 정치적인 영역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행동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주곤 한다(Kidwell, Farmer and Hardesty 2013). 가령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이득’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향상 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특징을 보인다(Janoff-Bulman 2009). 하지만 보수성향의 사람들은 ‘손실’ 같은 부정적인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치성향에 따라 삶의 목표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치성향은 흔히 개인의 사회적 활동이나 집단과의 상호작용 양식,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가령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사회의 번영을 위한 집단 협력이나 책임을 중시 여긴다. 이들은 집단의 경계(boundary)에 민감하지 않으며 특정 집단 보다는 사회전반을 위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문제해결을 중시 여긴다(Janoff-Bulman and Carnes 2013). 이와 달리 보수성향의 사람들은 집단의 경계에 민감하며 위협이나 손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집단 내 응집력과 충성도를 중요하게 여기곤 한다. 이에 따라 사회에 공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반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 탓으로 돌리곤 한다(장경은·백영민 2016).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정치성향이 개인의 정치 관련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탐구해왔다. 국내의 경우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춘식·강형구 2009). 이들은 보수성향의 사람들에 비해 지지하는 정치 후보를 잘 변경하지 않는 특징도 보였다. 김(Kim, 2007)은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대인 신뢰도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사회정치 참여가 활발한 것

으로 보고했다. 정치성향은 정치와 관련된 미디어 이용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사 게시판의 댓글 이용을 살펴본 이준기와 한미애(2012)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성향과 유사한 언론사의 게시판을 주로 이용하며 댓글을 자신의 정치성향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발견했다.

다만 진보와 보수라는 구분 자체가 정치 관련 행위를 직접적으로 예측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가령 톨버트와 맥널(Tolbert and McNeal 2003)은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구분 자체는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함을 발견했다. 그보다는 진보나 보수의 정도 즉 정치성향의 강도가 정치참여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치성향의 조절 효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성향이 정치관련 행위나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한 효과가 항상 예측 가능하게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진보성이나 보수성이 동일한 정도로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otirovic and McLeod 2001). 대개 진보성이 보수성에 비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은 정치와 관련된 정보추구나 미디어 이용에도 영향을 주는데 진보성향자들은 특히 미디어 이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Nisbet and Scheufele 2004). 이들은 때로는 정치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미디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며(김춘식 2012) 트위터를 이용한 정치대화에도 적극적이다(황유선 2013). 진보적인 사람

들은 SNS를 이용한 의견표명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진보적 성향의 정당이나 정치 후보자들이 SNS를 통한 캠페인이나 정치전략에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이소영 2012).

이처럼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성향과 그 강도가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앞서 논의한 계획된 행위이론의 변인들이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치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가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인의 정치성향은 사회 속 타인과 집단과의 상호작용, 집단의 경계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심리적 거리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Janoff-Bulman and Carnes 2013). 문화와 관련된 자아성향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집단의 경계에 민감하지 않은 독립적 자아(independent self) 성향의 사람들은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보다는 개인의 목표와 신념을 중시한다(Markus and Kitayama 1991). 이와 달리 집단을 중시하고 이의 경계에 민감한 상호의존적 자아(interdependent self) 성향의 사람들은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을 중시하고 집단의 규율에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은 기부나 도움 같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도 집단 경계 내의 대상에 대해서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곤 한다(이진용·이유나·정윤재 201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 온라인 추모에 대한 태도가 행동의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개인의 정치성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온라인 추모는 공론장에서 배제되는 일반 시민조차 망자에 대한 비통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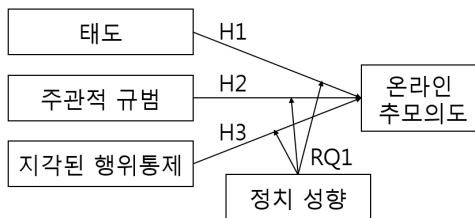
상실감을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친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Brennen 2008). 대상과의 강한 심리적 연대나 유대가 반드시 전제될 필요는 없으며 형식의 제약 없이 진솔한 의견을 통해 망자에 대해 추념하는 공적인 행위인 것이다(DeVries and Rutherford 2004). 따라서 사회의 변명을 위한 집단 협력이나 책임을 중시 여기며 집단의 경계에 민감하지 않은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보수성향의 사람들보다 온라인 추모에 대한 태도가 행위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집합행동 참여를 설명하는 임계모델(threshold model)에 따르면 사람들이 집합행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다른 사람들의 참여정도를 의미하는 임계값에 따라 달라진다(Chwe 1999). 즉 낮은 임계값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높은 임계값을 지닌 사람들에 비해 집합행동에 쉽게 참여한다. 연구에 의하면 집단에 대한 강한 연결망은 임계값을 낮추고 집합행동 참여를 쉽게 만든다(Granovetter 1978). 강한 연결망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효과적인 통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영향을 의미하는 주관적 규범이 온라인 추모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보수적인 사람들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보수성향의 사람들에 비해 정치 효능감이 높으며 인터넷 같은 미디어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안형기·신범순 2006). 이들은 미디어를 통해자신의 의사표현도 활발히 개진한다(황유선 2013).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 진보성향 사람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온라인 추모에 대한 행위통제가 보다 쉽게 행위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은 온라인 미디어의 이용에 별다른 어

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지각된 행위 통제가 더욱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는 정치성향이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가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치성향과 인터넷 이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때로는 상반되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가령 일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인터넷 이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고되지만 보수성향의 사람들이 댓글을 이용한 정치 참여에 더욱 적극적이거나(김학량 2016) 정치성향이 댓글 읽기·쓰기와 무관하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황유선 2013). 또한 아직까지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성별(한수영 등 2013)이나 인종(Blanchard et al. 2007)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계획된 행위의론의 조절 변인들에 대한 탐구가 제한적으로만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통해 정치성향이 계획된 행위의론의 변인들에 대해 조절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림 1>에는 연구모형이 제시되어있다.



<그림 1> 연구 모형

연구문제1: 정치성향은 계획된 행동이론 변인들이 온라인 추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인가?

III.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본인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 9월에 설문을 실시했다. 온라인 추모는 주로 SNS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기존 연구(윤홍석 외 2014)의 결과를 고려하여 SN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설문문의 첫 장에는 온라인 추모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SNS를 이용한 온라인 추모를 가정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했다.

2. 변인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은 모두 7점 리커트 형식(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으로 측정되었다. 먼저, 온라인 추모를 하는 것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의 평가를 의미하는 태도는 기존 연구(Ajzen, 1991)를 참조하여 4 문항으로 측정했다(나는 온라인에서 추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현명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3), $\alpha=.85$).

주변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기대와 반응에 부응하려는 정도를 의미하는 주관적 규범은 기존 연구(Ajzen 1991)를 참조하여 3 문항으로 측정했다(나에게 중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온라인 추모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권유할 것이다, 좋다고 할 것이다, $\alpha=.83$).

특정 행위를 자신의 의지 하에 실행할 수

3) * 표시는 역코딩 문항을 의미함.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지각된 행위 통제에 기존 연구(Ajzen 1991)를 참조하여 3 문항으로 측정했다(온라인 추모를 하는 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다, 원한다면 나는 온라인 추모를 할 수 있다, 나는 온라인 추모를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alpha=.71$).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구분 자체 보다는 진보나 보수의 정도 즉 정치성향의 강도가 정치참여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정치성향의 측정을 위해 개인 스스로 정치와 관련된 가치관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수와 진보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상호(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알트메이어(Altemeyer, 1998)의 정치성향 척도 네 문항을 이용했다(나는... 전통적 가치와 전통적 방식이 여전히 삶에 최선의 방법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안위가 개인의 안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현실에 의혹을 제기하기 보다는 정부의 권위 있는 판단을 신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부적절한 내용을 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가 보도내용을 미리 검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alpha=.71$).

종속변수인 행위 의도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온라인 추모에 참여할 의도로 정의되었으며 다음의 3 문항으로 측정했다(나는 SNS를 통한 온라인 추모를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 같다*/ 할 가능성이 있다, $\alpha=.90$).

IV. 분석 결과

1. 기술 통계

연구 참여자는 총 308명이었으며 이중 남

성은 125명(40.6%), 여성은 183명(59.4%)이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21.8세($SD=2.8$)였으며 하루 평균 SNS 이용량은 165분($SD=163$)이었다.

<표 1>에는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태도, 행위통제, 행위의도의 평균은 척도 중간값인 4보다 높았다. 정치성향의 평균은 3.1($SD=1.1$)로서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진보 성향에 가까움을 보여준다.

<표 1> 측정 변인 기술통계

태도	주관적 규범	행위통제
5.0(1.1)	3.9(1.2)	5.3(1.1)
행위의도	정치성향	
4.5(1.5)	3.1(1.1)	

<표 2>에는 변인간 상관관계 값이 나타나 있다. ‘태도와 정치성향’, ‘행위의도와 정치성향’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

<표 2> 측정 변인의 상관관계

	1	2	3	4
1. 태도	-			
2. 주관적 규범	.51**	-		
3. 행위통제	.61**	.40*	-	
4. 행위의도	.71**	.57*	.56**	-
5. 정치성향	-.01	.25*	-.18*	.01

** $p<.01$

2. 가설과 연구문제 분석

가설과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에 앞서 평균 이동(mean centering)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변인들을 표준화했으며 정치성향과 3개의 독립변인들을 곱하여 3개의 상호작용 변인을 구성했다.

일 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인 나이와 성별, 그리고 독립변인인 계획된 행위이론 변인들을 투입했다. 그 결과, 성별(여=0, 남=1)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모두 행위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의 변량설명력은 53%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설1, 2, 3은 지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참고로, 분석에서 표준화된 변인들을 사용했기에 <표 3>에는 비표준화 계수(B) 값이 보고되어 있다.

<표 3>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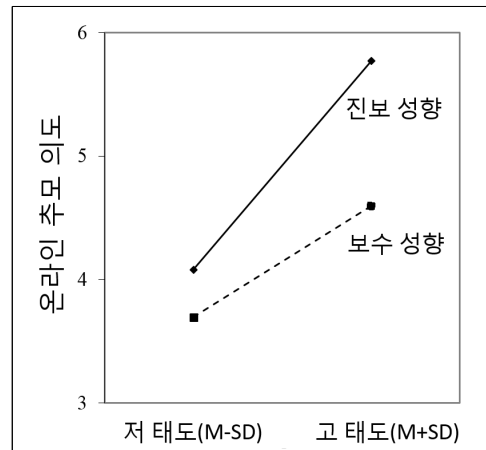
	Y=행위의도			
	1 단계		2 단계	
	B	t	B	t
나이	-.01	-.08	-.01	-.67
성별	.15	4.0*	.14	3.7
태도	.46	9.2*	.76	5.5**
주관적 규범	.28	6.6*	.07	.60
행위통제	.16	3.5*	.18	1.2
정치성향	-		.23	1.0
태도x성향	-		-.63	-2.3*
규범x성향	-		.42	2.3*
통제x성향	-		-.02	-.06
수정된 R ²	.53		.61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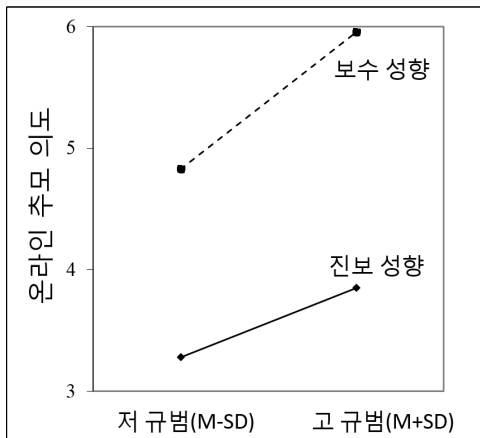
연구문제를 위한 이 단계 분석에서는 정치성향과 3개의 상호작용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했다. 그 결과 태도(B=.76, p<.01), 태도와 정치성향의 상호작용(B=-.63, p<.01), 그리고 주관적 규범과 정치성향의 상호작용(B=.42, p<.01)이 유의미했다. 이 단계에 투입된 변인들은 추가적으로 종속변인 변량의 8%를 설명해, 회귀모형은 총 61%의 설명력을 보였다.

유의미한 상호작용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단순기울기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했다. 참고로 회귀분석은 변량분석과 달리 상호작용에 대한 별도의 그래프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순 기울기 분석은 불연속 변인에 대한 변량분석의 그래프와 유사하게 연속 변인의 상호작용 특징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분석이다(Aiken and West, 1991). 이 분석에서는 표준화하지 않은 변인들을 사용했다.

먼저, <그림 2>에는 태도와 정치성향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 추모에 대한 태도가 높지 않을 때에는 추모의도가 정치성향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보수성향의 사람들보다 더욱 높은 추모의도를 보였다.



<그림 2> 태도와 정치 성향의 상호작용



<그림 3> 주관적 규범과 정치 성향의 상호작용

주관적 규범과 정치성향의 상호작용에 대한 <그림 3>은 앞서의 경우와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즉 전반적으로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추모의도가 높아졌지만 태도의 경우와 반대로 보수성향의 사람들이 더욱 높은 증가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성향이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행위의도에 대한 영향을 조절하지만 그 양상은 반대인 것임을 보여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추모라는 행위에 대해 계획된 행위이론을 검증하고자 했다. 특히 개인의 정치성향이 계획된 행위이론에 대한 조절변인으로서 역할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1. 기초 분석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온라인 추모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었으며 이들은 온라인 추모에 대한

높은 행동통제 지각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온라인 추모에 대해 별다른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특별한 장애를 느끼지는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의 평균적인 정치성향이 진보에 가까운 것은 젊은 세대일수록 진보성향을 보인다는 기존의 보고들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들의 온라인 추모에 대한 주관적 규범 인식은 척도의 중간 값 정도였다($M=3.9, SD=1.2$).

흥미로운 점은 정치성향이 태도나 행위의도와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정치성향에 따라 온라인 추모에 대한 태도나 의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선행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보수적일수록 온라인 추모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강하게 느끼지만 ($r=.25, p<.01$) 이들의 지각된 행위통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18, p<.01$). 이는 전통적 가치와 제도를 중시하는 보수성향의 사람들일수록 일종의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주관적 규범을 강하게 인식하지만 실제 이를 수행하는 것에는 자신감을 보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보수적 정치성향과 SNS 이용량의 상관관계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을 발견했다($r=-.125, p<.05$). 이로 미루어 보수성향의 응답자일수록 SNS를 적게 사용하며 이로 인해 SNS를 통한 온라인 추모행위의 통제감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위의도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태도($r=.71, p<.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위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이 태도라는 기존 연구(Armitage and Conner, 2001)의 결과에 부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영향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계획된 행위이론의 검증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의 일 단계에서는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를 투입했다. 먼저, 통제변인인 나이와 성별의 경우 성별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온라인 추모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세 독립변인들은 태도 > 주관적 규범 > 지각된 행위통제의 순으로 행위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영향 차이($t=2.6, p<.01$)와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의 영향 차이($t=3.1, p<.01$)는 모두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세 독립변인들 중 주관적 규범의 설명력이 가장 낮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들과 대치되는 것이다(손영곤·이병관 2012; Armitage and Conner 2001). 즉 기존 연구들과 달리 지각된 행위통제의 영향이 가장 작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아마도 온라인 추모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계획된 행위이론을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주로 개인의 행동에 대해 진행되었지만 온라인 추모는 순수하게 개인 혼자만의 행동으로만 보기 어려운 일종의 사회 참여적 행위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온라인 추모는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온라인 추모행위가 프로필 사진 변경, 댓글이나 추모글, 관련 동영상 업로드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다른 이들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혼자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남들이 볼 수 있는 행동이라 간주하고 사회적 압력의 영향을 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관적 규범의 영향이 지각된 행위통제의 영향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3. 정치성향의 조절효과

연구문제인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의 이 단계에서 정치성향 변인과 세 상호작용 변인들을 투입했다. 그 결과 태도와 정치성향, 그리고 주관적 규범과 정치성향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 일 단계와 다르게 성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정치성향의 주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성향은 태도 및 주관적 규범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보였기 때문에 정치성향의 주효과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

먼저, 정치성향과 태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결과는 온라인 추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에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더욱 온라인 추모의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추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때 추모의도 역시 높아졌지만 그 증가 정도는 진보성향일수록 더욱 큰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진보성향의 사람일수록 온라인 추모에 대한 태도가 추모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치성향과 주관적 규범의 상호작용에서는 이와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추모의도 역시 높아졌지만 이러한 증가는 보수적일수록 더욱 커진 것이다. 이는 앞서 태도의 경우와 반대인 것으로서 주변사람들에 의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회적 압력의 영향은 보수성향의 사람들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행위의도에 대한 태도의 영향은 주로 진보성향의 사람들에게서, 주관적 규범의 영향은 주로 보수성향의 사람들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의 정치성향이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효과를 조절하는 방향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이는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보수성향의 사람들은 주변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온라인 추모의도에 대한 영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 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던 지각된 행위통제는 정치성향이 포함된 이 단계에서는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행위의도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하지만 정치성향 같은 변인이 포함된 경우 그 영향이 사라진 것이다. 이는 아마도 온라인 추모행위의 경우 정치성향과 태도 혹은 주관적 규범의 상호작용이 지각된 행위통제의 영향을 상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행위의 경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행위의도의 주된 예측 변인이지만 온라인 추모의 경우 태도, 주관적 규범, 정치성향,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이 행위의도를 더욱 잘 예측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온라인 추모의 경우 지각된 행위통제의 역할이 왜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아마도 온라인 추모행위의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온라인 추모는 프로필 사진 변경이나 댓글을 이용해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하지만 애도의 글을 작성하거나 관련 삽화나 동영상을 제작 혹은 업로드 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행위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추모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를 측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설문 과정에서 응답자들이 어떠한 행위를 염두에 두고 답변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만약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쉬운 프로필 사진 변경이나 댓글 등을 염두에 두고 답했다면 이로 인해 지각된 행위통제의 영향이 작게 나타났을 수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세밀한

측정을 통해 이러한 논의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결론 및 제언

이제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계획된 행위이론은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사회인지 이론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계획된 행위이론의 전신에 해당하는 합리적 행위이론에 대해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상호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행위위도가 행위의도로 이어지는 과정에 '경험' 같은 다른 변인의 영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해왔다(Bagozzi, 1981). 이러한 지적은 계획된 행위이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이들 이론에 대한 연구들에서 각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들에 대한 탐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치성향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조절함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계획된 행위이론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 추모라는 특정 상황에서 계획된 행위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단순히 계획된 행위이론을 검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추모 상황에서 정치성향을 조절 변인으로 이용하여 그 역할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정치성향이 태도와 주관적 규범과 상호작용하여 추모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치성향의 유의미한 조절적 역할을 나타내는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정과 접근이 타당했음을 보여준다.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정치성향과 정반대의 상호작용 양상을 보이는 것을 발견한 점도 의미가 있다. 진보성향의 경우에는 개인의 태도가, 보수성향의 경우에는 주변의 사회적 압

력인 주관적 규범이 더욱 큰 영향을 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성향이 정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미디어 이용이나 온라인 의사표현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김춘식, 2012; 안형기·신범순, 2006). 그러나 연구결과는 해당 행동의 특성에 따라 때로는 보수성향의 사람들이 더욱 활발하게 미디어를 이용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편의표본인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과를 다른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온라인 추모라는 특정 행위에 대해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다른 행위들에 대해서도 정치성향의 역할이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가령 행위수행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온라인 추모행위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아 지각된 행위통제의 영향이 작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SNS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이었다는 점도 언급할 수 있다. 연구결과가 참여자들의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보다 다양한 계층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정치성향은 정치관련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친사회적 행동이나 기후변화 인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성향의 역할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정치성향이 삶의 목표나 가치, 동기 등 다양한 영역에도 폭넓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정치성향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탐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정미. 2006. "인터넷이 집합행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2002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 (1): 183-211.
- 김춘식. 2012. "전통미디어와 대화를 통한 정치정보 습득이 정치 신뢰와 미디어 신뢰에 미치는 영향: 유권자의 인터넷 이용 동기와 인터넷 정치정보노출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 (4): 389-413.
- 김춘식·강형구. 2009. "정치적 소비자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연구." 『한국언론학보』 53 (4): 162-182.
- 김학량. 2016. "한국인의 인터넷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52: 29-49.
- 변상호. 2014. "정치 팟캐스트 이용과 정치성향의 상호작용이 기성 미디어 대체와 보완에 미친 영향." 『한국언론학보』 58 (6): 90-118.
- 손영곤·이병관. 2012.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사회인지적 행동 모델의 유용성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언론학보』 56 (6): 127-161.
- 안형기·신범순. 2006. "정치참여 결정요인으로서의 인지적 효능감: 네티즌의 투표행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 (1): 27-49.
- 윤홍석·정재열·박세영·김유진·신동희. 2014. "디지털 추모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SNS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 『한국HCI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76-280.
- 이소영. 2012. "4.11 총선과 SNS 선거 캠페인."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발표집』 97-122.
- 이완수·유재웅. 2013. "대통령 죽음의 재현방식: 온라인 추모 글에 나타난 노무현·김대중 대통령 죽음." 『한국언론학보』 57 (2): 80-101.
- 이준기·한미애. 2012. "개인의 정치성향이 뉴스 댓글에 대한 신뢰성과 사회적 영향력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7 (1): 173-187.
- 이진용·이유나·정윤재. 2015. "개인의 정치성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메시지프레이밍과 심리적 거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6 (3): 415-432.
- 장경은·백영민. 2016. "한국의 메르스 사태는 어떻게 정치화되었는가?: 건강통제영역 인식성향이 메르스 피해관련 책임귀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치적 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0 (3): 36-65.
- 한수영·최문형·박미경·이홍재. 2013. "SNS 이용이 사회적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정보관리학회지』 30 (3): 133-156.
- 황유선. 2013. "진보적 정치 성향과 정치 지식은 정치 대화를 촉진하는가?: 트위터 매개 정치 대화와 트위터 연계 정치 대화에 관한 영향력 탐색." 『한국언론학보』 57 (3): 221-248.

Non-Korean References

- Aiken, Leona and Stephen West.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CA: Sage.
- Ajzen, Icek.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2): 179-211.
- Altemeyer, Bob. 1998.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47-92.
- Armitage, Christopher and Mark Conner. 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4): 471-499.
- Bagozzi, Richard P. 1981. "Attitudes, Intentions, and Behavior: A Test of Some Key Hypothe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4): 607-627.
- Bandura, Albert.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2): 191-215.
- Blanchard, Chris, Janet Kupperman, Philip Sparling, Eric Nehl, Ryan Rhodes, Kerry Courneya, Frank Baker, and Tiffany Hunt. 2007. "Ethnicity as a Moderator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Physical Activity in College Student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8 (5): 531-541.
- Blanchard, Chris, Ryan Rhodes, Eric Nehl, Janet Fisher, Philip Sparling, and Kerry Courneya. 2003. "Ethnicity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the Exercise Domain."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27 (6): 579-591.
- Brennan, Mike. 2008. "Mourning and Loss: Finding Meaning in the Mourning for Hillsborough." *Mortality* 13 (1): 1-23.
- Chwe, Michael Suk-Young. 1999. "Structure and Strategy in Collective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 (1): 128-156.
- DeVries, Bryan, and Judy Rutherford. 2004. "Memorializing Loved Ones on the World Wide Web." *Omega* 49 (1): 5-26.
- Ester, Peter and Vinken Henk. 2003. "Debating Civil Society: On the Fear of Civic Decline and Hope for the Internet Alternative." *International Sociology* 18 (4): 659-680.
- Fishbein, Martin and Icek Ajzen.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Giaxoglou, Korina. 2015. "'Everywhere I Go, You're Going with Me': Time and Space Deixis as Affective Positioning Resources in Shared Moments of Digital Mourning." *Discourse, Context and Media* 9: 55-63.
- Granovetter, Mark. 1978. "Threshold Models of Collective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 (6): 1420-1443.
- Janoff-Bulman, Ronnie. 2009. "To Provide or Protect: Motivational Bases of Political Liberalism and Conservatism." *Psychological Inquiry* 20 (2-3): 120-128.

- Janoff-Bulman, Ronnie and Nate C. Carnes. 2013. "Surveying the Moral Landscape: Moral Motives and Group-based Moralit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7 (3): 219-236.
- Jost, John T. 2006. "The End of the End of Ideology." *American Psychologist* 61 (7): 651-670.
- Kidwell, Blair, Adam Farmer, and David Hardesty. 2013. "Getting Liberals and Conservatives to Go Green: Political Ideology and Congruent Appeal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0 (2): 350-367.
- Kim, Min-Sun. 2002. *Non-western Perspectives on Human Communication: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Thousand Oaks CA: Sage.
- Kim, Sei-Hill. 2007. "Media Use, Social Capital and Civic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4 (3): 477-494.
- Lyndsay, Michalik. 2013. "Haunting Fragments: Digital Mourning and Intermedia Performance." *Theatre Annual* 66: 41-64.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An Hyeong-ki and Shin Bum-soon. 2006. "Efficacy as a Determinant of Political Participation."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0 (1): 27-49.
- Byeon Sang-ho. 2014. "Interaction Effect of the Usage of Political Podcasts and Political Orientation on the Usage of Television, Newspapers, and the Internet."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8 (6): 90-118.
- Han Su-young, Choi Moon-hyeong, Park Mi-kyung and Lee Hong-jae. 2013. "The Effect of SNS Use on the Social Network: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 (3): 133-156.
- Hwang Yoo-sun. 2013. "Do a Progressive Political Tendency and Political Knowledge Promote Political Conversation? An Analysis of the Effects on Twitter-mediated and Twitter-connected Political Convers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7 (3): 221-248.
- Jang Kyung-eun and Baek Young-Min. 2016. "How Did the MERS Outbreak Become a Political Issue? How Political Ideology Moderates the Effect of the Multidimensional Health Locus of Control Beliefs on Citizens' Attribution Process of the MERS Outbreak."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60 (3): 36-65.
- Kim Chun-sik and Khang Hyoung-koo. 2009. "The Intersection of Markets and Politics: Political Consumerism as a New Form of Political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3 (4): 162-182.
- Kim Chun-sik. 2012. "Media Use, Political Discussion, and Trust in Politics and the Media Effects of Motives for Internet Use and Internet Exposure as Moderato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6 (4): 389-413.
- Kim Hak-ryang. 2016. "A Study of Koreans'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Comments."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52: 29-49.
- Kim Kyung-mi. 2006. "The Effects of the Internet on the Participation in Collective Action Focusing on the 2002 Candle-light Demonstra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0 (1): 183-211
- Lee Jin-yong, Rhee Yun-na and Cheong Yun-jae. 2015. "How Political Ideology Influences Prosocial Behavior: Focusing on the Effects of Message Framing and Psychological Distance." *The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16 (3): 415-432.
- Lee So-young. 2012. "The General Election and the SNS Election Campaign." Symposium of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 Lee Wan-soo and Yoo Jae-woong. 2013.

- "Online Memorials: Representing the Deaths of South Korean Presidents Roh Moo-hyun and Kim Dae-jung."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7 (2): 80-101.
- Lee Zoon-ky and Han Mi-ae. 2012. "The Impact of Individuals' Political Tendency on the Perception of Reliability and Social Impact of Online Newspaper Comments."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17 (1): 173-187.
- Sohn Young-kon and Lee Byoung-kwan. 2012. "Efficacy of the Social Cognitive Behavior Model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6 (6): 127-161.
- Yoon Hong-suk, Jeong Jae-yeol, Park Se-young, Kim Eu-gene and Shin Dong-hee. 2014.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herish the Memory Digitally.'" The HCI Society of Korea.